

함평군농기계임대사업장콩 선별장 '문전성시'

군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 3곳에 정선기 설치 콩 40kg들이 1포대 당 1천원...소요시간은 15분

함평군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있는 콩 정선기가 지역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8일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3곳에 콩 정선기를 설치, 콩 재배농가의 선별·정선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콩의 품질을 균일하게 높여주기 위한 정선작업은 검정콩, 약콩, 매주콩 등 종류별로 실시되고 있다. 별도로 설치한 선별기 6대는 팔도 함께 선별한다. 수수료는 콩 40kg들이 1포대 당 1천 원으로, 선별 소요시간은 15분 가량이다.

콩 선별은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191톤에 달하는 콩을 정선했는데 올해는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로 농가 선호도가 높아 작년 정선량을 가늠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콩 정선기는 물론, 파종기, 탈곡기 등의 농기계 비중을 점차 늘리면서 농업 기계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보행관리기, 양파 이식기 등 총 60종 379대의 농기계를 임대



대·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천 7 백만 원의 임대 수입을 기록하고 있

함평=김광춘 기자

홍어장수 문순득과 함께 신안 국제 문페스타 개막

신안군은 홍어장수 문순득과 함께하는 '신안 국제 문페스타'가 10일부터 3일간 팔금도 고산카페와 안좌도 김한기 생가,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해 개최한 '신안 문순득 국제페스티벌'의 명칭을 문순득의 성을 딴 '신안 국제 문페스타'로 변경하고 새롭게 구성했다. 올 문페스타는 코로나19에 대비 유튜브 '갯돌TV'를 개설해 신안 섬과 우이도 출신 문순득의 표류역사를 지구촌 곳곳에 온라인으로 송출한다. 축제는 아름다운 신안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라이브 콘서트를 비롯해 해양문화여행, 해외랜선여행, MOON 표류탐험, 파시마당 등 흥미진진한 볼거리로 구성했다.

날마다 축제 장소를 옮겨 진행하는 라이브 콘서트 '갯돌콘서트'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객을 입장시키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블루음악의 디바 강하달림, 스카음악밴드 킹스틴투디스카, 어쿠스틱밴드 신나는 섬, 문재즈밴드, 이영태 명창, 타악그룹 소나기프로젝트 등 국내 최고의 음악가들이 신안 섬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펼친다. 축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개·폐막 프로그램은 매우 신선하고 이채롭다. 개막은 홍어장수 문순득 일행이 우이도 신당 터에서 안전기원을 하고 난 후 배를 타고 출항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폐막은 우이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제웅(질인행)놀이로 지구촌의 안녕과 신안의 발전을 기원하며 우이도 앞바다에 띠탄을 띄우면서 막을 내린다. 해외 랜선여행에는 오기나와, 필리핀, 마카오 3개국의 온라인 공연이 초청됐다. 문순득이 표류한 국가로서 각국의 해양 민속이 소개된다. 해양문화여행 프로그램은 신안의 유서 깊은 해양 민속을 축제 전면에 부각하기 위하여 문순득 추모제, 천일야생 등으로 구성했다. 추모제는 국립문화재청 이윤선 전문위원이 문순득을 맞아 진행된다. 우이도 문순득 생가 마당에서 각종의 의례와 놀이로 문순득의 해양 정신을 기린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올해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선보인 만큼 문페스타가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신안의 해양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60분 걷고 60년 더 건강하게' 걷기 동아리 운영

14개 마을주민 200명 대상

무안군은 지난 10월부터 관내 14개 마을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4번 '60분 걷고 60년 더 건강하게'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걷기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심장병과 뇌졸중, 비만 등을 감소시키며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만 생활하여 신체활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걷기운동은 필수이다. 군 보건소는 마을주민 공원길, 마을안길과 농로길 등을 걷기코스로 지정

하고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걷기 동아리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수산종합지원단지 연내 완공 '박차' 위관·유류·제빙·냉동 등 원스톱 지원...경비 절감 기대

목포시는 북항 배후단지에 추진 중인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이 올 연내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어민들이 최근 품어로 요구하고 있는 지원단지 위관장의 임시사용은 현재 준공을 위한 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목포 북항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는 현재 금화동의 목포수협이 이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37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단지에는 선 어위관장과 새우젓위관장, 중도매인 사무실, 제빙·냉동·냉장 창고, 유류공급 시설 등이 들어선다. 어선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받게 되는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 어업경비 절감이 기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관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북항 위관장의 임시사용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어민들은 최근 조기와 갈치, 새우 등의 대품어로 목포수협 위관을 위해서는 냉동탑차를 이용해 길거리에서 2-3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북항 지원단지 위관장의 임시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불허하고 있다. 현재 아스콘공사와 차선도색, 안전시설 등 준공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임시사용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12월 중순까지 승인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광군, 적극행정 확산위한 홍보물 제작

영광군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 및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사례집,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자체 제작했다. 제작 홍보물은 포스터 50장, 리플렛

1,000매, 사례집 40권 등으로, 전 부서에 배부하여 군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공유할 계획이다. 포스터는 '적극행정으로 만들어가는 영광군 공직생활'이라는 표어로 제

작되었으며, 리플렛 및 사례집에는 3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담았다. 사례집에는 적극행정으로 이루어낸 성과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 시 겪은 실무상 어려움과 해결 과정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영광=서희권 기자

전동평 영암군수,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방문...농민목소리 청취

전동평 영암군수는 10일 군서면 동구림리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을 방문하였다. 전 군수는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군은 3일 친환경벼 매입을 시작으로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한달여 간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올해 총 매입량은 건조벼 8,764톤과 산물벼 1,550톤을 합쳐 총 10,314톤으로 작년대비 1.4%증가했으며, 매입품

종은 일미와 영호진미 2품종이다. 매입가격은 중간정산금(30천원/포대)을 수매 당일 농가에 지급하고, 최종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차액을 연말에 지급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 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